

대선후보자들이 내놓은 1호 공약은?

문재인 '일자리'
홍준표·안철수 '안보'
유승민 '복지'
심상정 '촛불'

조기대선에 임하는 각 당 후보별 1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안보로 갈렸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전면에 등장한 반면,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안보'가 1순위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분석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신의 지지층인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치안·복지와 직결된 분야에서 17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마련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문 후보 의지가 반영됐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방·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이슈인 안보를 전면에 내세워 보수후보로서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사드를 배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무게를 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안보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 입장에서 이번 선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도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끌어온다는 복안이다. 그는 다만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강조해온 '자강'이란 키워드를 안보정책에도 적용해 차별화를 도모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육아휴직 등 복지 측면에 초점을 둔 노동정책을 우선시했다. 특히 자녀가 성인

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휴직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휴직 도입'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공공보육시설 이용 이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촛불집회를 공약에 명시,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뉴스

선거운동의 꽃 '로고송'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각 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 활용할 로고송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곡을 준비했다. 나미의 '영원한 친구',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시작으로 코요태의 '순정', DJ DOC의 '뎀투유' 등을 로고송으로 결정했다. 또 트와이스의 'CHEER UP'을 개사한 로고송도 마련했고, 홍진영의 '엄지척'도 개사해 활용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엄지척' 개사를 통해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뎀투유'와 'CHEER UP'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약을 담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역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로고송을 선택했다. 박상철의 '무조건'과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을 비롯해 젊은층을 공략한 '귀요미송'과 마미무의 '음오아예'를 선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식 로고송은 가수 신해철의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이다. 또 동요 '뾰뾰 뾰뾰 비행기'의 개사곡과 창작곡인 트로트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개사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걸그룹 트와이스의 'CHEER UP'을 로고송으로 선택했다. 또 노라조의 '고등어', 박현빈의 '방사방', 해은이의 '파라나라', 동요 '상어가족' 등을 선택했다. 유 후보는 '상어가족'을 개사해 자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이겨낼 후보임을 강조하고,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육아휴직 연장과 재벌개혁 등을 강조했다. 'CHEER UP' 개사를 통해서도 '경제와 안보를 보수답게 해결할 기호 4번'을 강조하고, 공약 등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집회에서 자주 쓰인 윤민석의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와 유정석의 '질풍가도', 이문세의 '붉은노을' 등을 로고송으로 결정했다. 심 후보는 '질풍가도' 개사를 통해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강조했다. '붉은노을' 개사를 통해서도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뉴스

안철수 후보, 전북대서 지역 첫 유세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7일 오후 2시 전북대 구정문 앞을 방문해 지역 첫 유세를 하며 전북 유권자들을 만났다. 안철수 후보가 전국 순회 유세 첫 지역으로 전북을 선택한 것은 '전북 First'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일 위원장과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문병호 유세본부장, 조배숙 직능본부장, 유성업 조직본부장 등 중앙선대위의 화력지원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대선이 시작됐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 아침 관화문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임을 확인했다"고 첫 운을 뗐다. 안 후보는 "호남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 주셨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이다"며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실하게 개혁 하겠다. 누구에게도 신세진적 없다. 경제적, 정치적 자수성가했다. 재벌개혁·검찰개혁·정치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덧붙이며 적폐청산과 개혁의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일 첫날인 17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북대학교 앞 유세에 앞서 조배숙 의원, 박지일 당대표, 도내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선 후보자 토론회, 스탠딩 토론 방식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방위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간총량제 자유 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초연선은 생각해 후보자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 3회의 초청대상 토론회 중 1차(정치분야)와 3차(사회분야) 토론회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을 도입해 후보자별로 주어진 발언시간의 총량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다. 후보자 5인을 기준으로 자유토론 발언시간은 후보자당 총 18분이고 후보자가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방식도 도입했다. 다만, 2차 토론회(경제 분야)는 1.3차 토론회와 달리 한 후보자의 정책 발표 후 나머지 후보자와 1:1로 질문·답변하는 정책검증 토론을 갖아서 진행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하고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1차 23일 정치분야, 2차는 28일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한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 독자 권역론' 공약 발표

차별·소외 청산... 농생명 수도·연기금 금융중심지·한국체험 1번지 육성 등 내세워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독자 권역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7일 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 함께 과거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부패 정권을 걷

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여정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잠미대선이 아니며, 촛불이 외쳤던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선거"라며 "이번 대선에서 촛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지역 차별과 소외

당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전북 독자 권역론을 거듭 강조했다. 전북 독자 권역론은 호남의 테두리에 전북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전북 자체로서 당당하게 전북 뒤편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전북 뒤편 찾기'와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들이 이날 밝힌 전북 공약은 크게 ▲농생명 수도 조성 ▲연기금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한국체험 1번지 육성 ▲새만금을 동아시아 미래경제중심지로 조성 ▲자치분권 지속가능한 전북 ▲전국을 2시간 내로 SOC 구축 등이다. 이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확실히 변모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점이다"며 "민주당 흔들기 공작에 흔들리지 말고, 도민을 지키고 도민과 함께 해 온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뉴스